

변화와 작심삼일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변화”가 그 핵심이고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동안 추구하는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체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로마서 Romans 12:2)” 이 변화의 출발점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가득한 세상적인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판단 기준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분별하여 변화(transformed)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렸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렸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오늘로 벌써 19일째를 맞이합니다. 바로 하루 전에 맞이한 새해인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 2025년도 세이레의 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 하나쯤은 세우게 됩니다. 새해에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 기구를 들여 놓고 매일 같이 운동을 하기를 결심합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보고자 결심하기도 합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매일 성경을 읽겠다고, 혹은 새벽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겠다고 결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이러한 결심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다시 살아 오던 모습대로, 그 패턴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작심삼일은 과학적으로도 근거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새롭고 힘든 일을 시작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데, 세로토닌 분비는 72시간 가량만 지속되므로 72시간이 지나면 세로토닌 작용이 끝나 목표가 더욱 힘들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심삼일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실패했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일만에 나의 작심이 흔들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삼일 동안 내 결심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삼일 단위로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삼일을 넘기기 힘들지만 삼일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광고이론 중 ‘3Hit이론(Three Hit Theory)’이 있습니다. 1972년 크루그만(Krugman)이라는 분에 의해 정립된 광고의 반복학습이론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광고할 때 처음 1, 2회의 노출은 효과가 없지만 최소 3회 이상 노출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 정도 반복해야 우리 뇌가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허기진 배는 결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은 부정어 아닌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작심삼일은 ‘작심해서 삼일도 못간다.’가 아니라 ‘작심하고 삼일만 견디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거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번을 반복하고 3일만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수없는 결심과 실패의 반복을 통하여 올 한해동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 누군가가 노래하였듯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이루어 지길 기도합니다. “당신을 보니, 써리한인교회 공동체를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라는 고백이 그림습니다. ☪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주요 소식

- 1) 2025 표어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롬12:2)입니다.
- 2) 정기당회 1월 19일(주일) 오후 2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 3) 전반기 양육훈련 참여할 분들은 현관 게시판 포스터에 이름을 적어 등록 신청해 주세요.
1)제자 훈련반 입문반 / 심화반 2)바나바 섬김 훈련반 3) Mother wise
- 4) 선교 헌금 작성 선교 헌금 작성서를 작성하여 예배 후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기관 / 부서별 간담회(당회) 1월 19일(주일) 부터 1월 31일까지 2025년 사역을 위한 기관별/부서별 간담회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6) 2025년 써리한인교회 시니어 프로그램 (New Season)시작 및 봉사자 모집
시니어 프로그램인 “New Season”이 매달 1회 개최 됩니다. 1월 첫 모임은 1월 21일 (화) 오전 10시 - 오후 1시 까지입니다. **차량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김정숙 선교사)
- 7) 2025년 점심 봉헌 신청 아래 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 포스터에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2025 남전도회 조직 변경 2025년 남전도회를 1,2 남전도회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60세 이상은 1남전도회로 60세 미만은 2 남전도회로 변경하오니 각 전도회 별로 모임을 갖고 임원 구성 및 2025년 활동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 교우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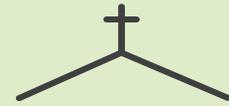
- 1) 귀국 이자수 권사

■ 1월 주요 행사 안내

- 1) 제직 및 목장 섬김이 헌신예배 1월 12일(주일)
- 2) CAMP 개강(오케스트라 및 웹아트반) 1월 17일 -
- 3) 밀알선교단 점심 봉사 1월 18일(토)
- 4) 기관 / 부서별 간담회(당회) 1월 19일(주일) 예배 후
- 5) 목장 모임 1월 26일(주일)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청년부)
- **원로목사 /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 (청소년부, 행정, 선교), 한기석 목사 (양육)
배영광 목사 (협력선교사, 예배 찬양), 하선미 전도사 (유치부/유초등부)
이영미 전도사 (영아부/유아부), 김정숙 선교사 (시니어 사역)
김지형 전도사 (인턴)
- **시무 장로** 김향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종
- **반 주** 김민경, 변순환(새벽예배)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써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